

# 山林經營會報

發行人：韓 榮 錫  
 主 幹：崔 東 均  
 發行處：(社) 韓國山林經營者協會  
 住 所：서울特別市城北區安岩洞 5 街  
 ' 134-58 電 923-4372

## 第 11 回 育林의 날 行事

### 全大統領 參席 林業人 激勵

山林廳은 지난 11.7 光陵에 있는 林業試驗場 試驗林에서 第 11 회 育林의 날 行事를 갖었다. 이 자리에는 全大統領 閣下와 學界, 篤林家 傘下團體長, 地域人士등 160 여명이 參席한 가운데 行事를 갖었으며 全大統領은 이들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그동안의 篤林家들의 勞苦에 대하여 致賀하고 激勵하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살기 위해서는 산림을 잘 가꾸워 나가는 길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또 우리의 資源은 山과 사람밖에 없으므로 山을 활용하고 나무를 기르는 기술교육 등을 중요시 해야 하며 育林의 날을 정한것은 국민들에게 나무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갖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全大統領은 이제 山地는 綠化되었으니 資源化에 박차를 가하여야 될것이라고 하면서 經濟性 있는 適地適樹方法 開發 高山地帶의 經濟樹種開發, 탄광, 시멘트工場 지대의 砂防事業 복구방법, 休養林造成에 있어서의 財源誘致方案, 山林局 부활, 營林署 現場爲主로의 직제개편, 山林開發基金의 增額등 현안 山林관계 문제점등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다.

또 山林廳은 이보다 앞서 육림주간에 즈음하여 범국민적 育林霧圍氣 造成과 育林作業의 技術向上 및 보급을 위하여 지난 10.30 강원도 평창군 봉평협업 경영시범지역에서 育林研究會를 개최한 바 있으며 11.1 에는 光陵 試驗林 內에서 靑少年 育林祭와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다.

## 私有林 林木 伐採 일부 緩和

### - 産業備林, 篤林家所有林등 -

山林廳은 그동안 木材需給의 적정과 價格安定을 기하기 위하여 私有林 林木伐採 許可를 制限措置한 바 있으나 '88 造林事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林木伐採 許可制限을 일부 解除하였다.

지난 11.11 산림청이 발표한 고시(제 10 호)에 따르면 불량림의 樹種更新을 위한 伐採와 産業備林, 篤林家所有林, 私有林協業 經營地域의 '88 造林에 정지가 대상이 된다.

이로써 이번의 伐採緩和措置로 지난번 4 月 15 日字로 林木伐採를 一切 中止시킨 以來 지난 8 月에 장마 피해 복구를 위한 自家用材의 伐採와 9 月에 표고자목 및 해태목 벌채 규제를 완화한데 이어 이번이 세번째 완화조치가 되는 셈이다.

## 篤林家伐採施業, 自律化措置

- 各種 添附書類, 公務員現地確認 등 省略, 施業申告書만으로, 自律性保障 -

山林廳은 伐採施業에 있어 모든 복잡한 첨부서류나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 사업신고필증의 교부·복잡한 절차를 篤林家에게는 이를 전면 해제, 伐採施業 申告書 만으로 自律性を 保障하는 내용의 篤林家伐採施業 自律化措置 方案에 대한 關係 規定(山林法 施行 規則 등)을 改定하고 이를 11.17자로 布도록 하는 한편 各 市道知事에 指示 통첩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綠化爲主와 保護政策爲主로 山林施策을 이끌어오는 과정에서 伐採施業에 따른 制約規定이 지나치리만큼 많았으나 이제는 일단은 綠化가 成功되고 山林施策이 資源化促進施策으로 전환됨과 아울러 山林經營人들의 意識水準도 많이 달라졌으므로 時代的, 必然的으로 이를 점진적으로 緩和하여야 한다는 판단하에 우선 篤林家부터 施業에 自律性を 보장토록 한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로써 篤林家들에게는 伐採施業申告書 提出로서 모든 복잡한 節次를 간소화하게 되었고, 그동안 本會나 많은 篤林家들로부터 自律施業의 보장을 부르짖어 왔던 숙원사항 한가지가 이루어지게 된것이다.

그러나 自律은 항상 責任도 隨伴하듯이 山林經營原則에 立脚한 良法있는 施業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만약 自律性を 기화로 不法 不當한 施業이 이루어짐이 發見될 때는 關係法에 의하여 嚴罰主義로 처벌됨은 물론 篤林家의 資格도 박탈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역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당부하고 있다.

### 林業稅制 改正案消息

## 營林計劃에 따라 造林한 5年이상 林地 20町步에서 100町步로 擴大 稅혜택 추진

〈상속, 증여, 양도 소득세 감면 확대〉

山林廳은 山地 造林 및 育林을 촉진하기 위해 5년이상 造林 및 育林 실적이 있는 林地에 대해 상속세 증여세 양도 소득세 감면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山地자원화 10개년 계획안」을 마련, 關係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산림청은 보존 및 규제 위주의 산림정책을 경영 조장위주로 전환키로 하고 稅制혜택을 확대, •영림계획에 따라 造林한지 5년이 지난 林地에 적용하는 상속세 증여세 면제(공제)한도를 현재의 20정보에서 1백정보로 늘리고 •현재 감면혜택이 없는 育林임지에 대해서도 영림계획에 맞춰 5년이상 育林했을 경우 1백정보까지 이들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오는 97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잡고 있는 「山地자원화 10개년 계획안」은 또 龍仁자연농원처럼 특정 목적으로 개발한 특수개발 임지에만 적용하고 있는 양도 소득세 50% 감면혜택을 영림계획에 따른 5년이상 造林 및 育林임지와 산림청의 지정개발 임지에도 적용하고 영림계획대로

나무를 심도록 돼있는 보전임지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稅制당국인 재무부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 상속세법 지방세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산림청은 상속세, 증여세 면제범위를 이처럼 면적기준으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공제한도가 금액 기준으로 최고 7천만원까지로 묶여 있어 면세 범위확대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산지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는 금액한도에 제외할 것을 추진키로 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현재 1백8억원이 조성돼 있는 산지개발기금을 오는 97년까지 5백억원으로 늘려 산지개발 지원자금으로 쓸 계획이다.

## 가을철 산불조심 期間 設定

山林廳에서는 산불이 많이 發生하는 가을철을 맞아 87.11.15~12.15까지 1個月間을 가을철 산불조심 期間으로 定하고 온 國民이 산불豫防 活動에 積極 參與하여 줄것을 當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每年 늘어나는 人口增加와 高度産業化에 따른 水質, 大氣, 土壤汚染과 소음등의 公害問題로 시달리고 있다.

全 國土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山林은 이러한 公害를 淨化할 뿐 아니라 心身을 맑고 健康하게 지켜주는 우리들의 貴重한 休息空間이다.

또한 生活水準의 向上으로 健康管理의 余暇를 즐기려는 入山客의 急増과 山林이 울창하여짐에 따라 落葉의 堆積層이 두터워져 燃燒物이 가득찬 火藥庫 狀態로 산불의 危險性도 急増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번의 산불조심 기간 설정을 통하여

- 入山統制 區域內 無斷入山者를 徹底히 統制하고
- 산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徹底히 團束啓道하며,
- 산에 갈때에는 도시락 持參을 勸奨하며,
- 어린이 불장난에 대한 豫防 教育을 하고
- 산불 發生時 가까운 有關機關에 即時 申告하고 迅速히 鎮火作業에 動員토록 홍보하며
- 氣象變化에 따른 警報發令 및 措置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는 등, 온 국민이 산불예방에 적극 참여하여 줄것을 當부하고 있다.

< 10 페이지에서 계속 >

樹皮는 밝은 灰色을 띠고 樹冠은 현사시와 같다.

生長과 材質및 適地는 현사시와 類似하고 樹幹이 通直하다.

포플러류는 雌雄異株이며 교잡종 포플러에서는 性轉換·현상이 발생되지만 가로수용 현사시에서는 발생되지 않는다.

都市 및 田園地域의 가로수로 적당하며 材質用途는 일반 포플러류와 같다.

①

다음 글은 지난 11.1 광릉에 있는 산림박물관에서 제11회 육림주간에 즈음하여 개최된 육림심포지움 석상에서 篤林家이며 본회 이사인 金基運(百濟藥品 그룹회장) 씨가 발표한 사례발표 내용이다. 氏는 山林事業 유공으로 금년봄에 銅塔產業 勳章을 수상한 바 있다.

- 편집자 -

## 篤林家 事例 發表

篤林家 김 기 운

정채진 청장님 그리고 산림청 관계공무원, 임학교수 여러분과 篤林家들을 모신 가운데 育林에 관하여 제가 지내온 경험을 말씀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양찰하여주시고 하나의 경험이라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림의 동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1945년 해방이후 임목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연료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山林은 황폐하기 시작하여 6.25 전란을 보내면서 극에 달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산에 비하면 그 모양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여 國民의 한 사람으로 후손에게 푸른산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과 산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장차는 훌륭한 소득원도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제가 조림하게 되는 동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산에 나무를 심고 사람들만 드나들지 않는다면 나무는 자연히 커주는게 아닌가 하는 단순한 생각에 시작하였습니다.

育林에 대하여 전연 모르는 狀態에서 무모한 생각을 하였던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조림을 할 수 있었던 동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 지금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동기에서 시작된 임업이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경제적 단위가 500 정보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까지는 하게 되었고 적당한 임지를 구하던 차에 1968년도에 전라남도 강진군 칠양면 명주리에 621 정보의 임지를 매입하고 1969년부터 1971년까지 3년에 걸쳐서 테에다소나무, 편백, 삼나무 등 12수종을 식재하였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심기만 하면 사는데 활착율은 40%정도에 그치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 성장속도는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더디었습니다.

여기에서 조그마한 경험을 터득하게 됩니다.

나무를 식재하는데 있어서 직경 30 cm에 깊이 30 cm의 구덩이를 파고 산림용 복합비료를 넣고 흙을 넣은 다음 묘목을 심고 흙을 덮고 정성들여 심는다고 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식재하는 사람들의 교육부족으로 복합비료분은, 비가 오면 묘목에 역삼투작용을 나타내는 듯이 보였으며 바람이 불어오면 묘목이 흔들려 고사하는 등 많은 노력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활착율은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1960년도 후반에 일선조림을 담당하고 있는 군청에서는 조림을 장려하였지만 시대적 상황이 육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묘목이 배당되면 형식적으로 심는척만 하거나 말려버리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인지라 나무를 심겠다는 사람은 좀 얼빠진 사람으로 취급되었고 활착율이 떨어져도 이에 관해서 문의할만한 곳도 알지 못하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서적을 통하여 해결해 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요즈음은 山林廳에서 다각도로 많은 연구들을 하여 여러 방면에서 생각하여도 괄목만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때만 하여도 묘목은 채종림에서 채취하여 생산하여야 함에도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다반사여서 묘목부터가 부실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작되었던 조림인지라 임학과 교수님 몇분과 산림관계자 여러분의 자문을 통하여 철저히 育林을 시행하는 것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우량수종을 식재하며 하예작업과 시비 및 병충해 방지 등을 하면서 입산금지와 화재방지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수종의 배식은 남향에는 재래종 소나무보다는 성장속도가 빠른 테에다소나무를 식재하고 북향에는 편백나무를, 골짜기에는 삼나무를 주로 식재하면서 적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목백합과 현사시를 식재하고 활착이 안된 부분에는 4~5회에 걸쳐서 보식을 하였습니다.

말씀인즉 4~5회 보식이라고 하지만 하예작업을 계속해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초기 활착율을 90% 이상으로 올려야만 이러한 중복된 일들을 하지 않게 되므로 초기활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테에다의 경우에도 초기 활착율은 40%도 못되었습니다. 묘목이 양묘를 하시는 분들에게서 우리에게 공급되면 가식을 거쳐 임지에 식재되기까지는 빠르면 이틀 늦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그동안 가식상태에서 굴취된 묘목들은 생체의 균형이 깨지면서 몹시 쇠약하게 되고, 산지에 식재하면 고사하는 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테에다 소나무의 경우 저희가 비교적 단지화에 성공하였다고 보고 성공하게 된 원인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식재함에 있어 많은 양의 묘목을 처리하다 보면 이러한 원인 때문에 활착율이 매우 떨어졌으므로 식재비용에 하예작업비를 합쳐서 보면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체 양묘를 하여야겠다고 결정하고 임목육종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테에다의 종자를 다량 미국에서 도입하여 자체 양묘를 하여 전날 굴취하고 다음날 식재하니 그 결과는 검목시에 90% 이상의 활착율을 나타냈으며 양묘하는데 유기질비료를 다량 사용하여 본 결과 거의 100%에 가깝게 활착하였습니다.

물론 굴취하면서 긴 뿌리들을 잘라주고 수분발생 억제제를 처리하는 등 묘목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했던 결과 활착율이 높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에다 소나무의 대단위 조림에 있어서는 포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양묘된 테에다 소나무 1년생 묘목을 산림경영 측면에서 식재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테에다 소나무의 경우에 5년생을 기준으로 풍해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겨울에 동해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가능한 식재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병충해에 있어서의 테에다 소나무는 송충이에 대하여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예작업에 있어서는 삼나무나 편백의 경우는 3년정도 하예작업을 해주었지만 테에다 소나무의 경우는 2년생 기준으로 1번만 하여 주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지 이용과 하예작업에 있어서 말씀드린다면 식재 초기에 저희 임지는 부분적으로 상당량의 흙을 넣어주어야 나무가 활착할 수 있는 땅들이 많아서 한사람이 하루에 20~30주 정도씩 식재한 면적도 40~50정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산림경영 측면에서 검토한다면 단위면적당 임목 축적량을 벌령기에 계산을 하여 볼 때는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특이한 방법의 식재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식재를 하고 하예작업을 진행하여 가는데 하예작업이 큰 문제로 등장하였습니다.

500만주 식재에 어림잡아 350만주 정도가 활착되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약 80정보부터 100정보를 10여년 이상 하예작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은 상당한 인내심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막상 하예작업을 하다 보면 칩닝클 등은 매우 장애가 되는 것들이고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일본 등지를 방문하여 당시 케이핑이라고 하는 것도 들여다가 써보았으며 지금도 칩닝클 제거는 당국의 협조하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예작업이 어느 정도 되고 육림을 시작한지 10여년이 되고 보니 지타작업이 큰 문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50여만주의 지타작업을 한다고 보면 숫자상으로는 매년 50만주 이상을 지타작업 내지는 간벌을 하여야 하는데 농촌인구 감소로 인하여 해마다 노임도 오르지만 이보다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노임도 저렴한 뿐만 아니라 농촌인구도 많아 조림을 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점차 농촌인구의 감소로 기계화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식재하는 것부터 간벌하는데 까지 생력화 내지는 기계화의 도입이 점진적으로 필요하게 되었고 저희들도 식재기계에서부터 하예, 지타기계에 이르기까지 부분적으로 기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육림을 성공하려고 보면 인체에 혈관처럼 임도의 구성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개설한 임도는 연장 22 km이나 10 km 정도는 더 확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도는 저희가 사용해 본 결과로는 앞으로 기계화를 한다는 전체조건하에서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저는 현장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육림에 있어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라 매월 1~2회 현지를 방문하여 2~3일 머물면서 15~20명으로 조직되어 있는 작업반을 격려하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상의하여 업무에 임하며 평소에도 그 진행사항을 매일 전화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산림경영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속출하고 많은 투자가 됨으로 해서 그 부가가치를 최대한으로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검토하던중 산림경영의 합리적 경영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조건들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면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둘째로, 어떻게 하면 간벌을 잘하여 우량수목을 남겨놓을 수 있을까?

셋째로, 무절목 생산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지타작업의 개선방법은?

넷째로, 투입비용의 합리적인 재원확보와 지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면 성장속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가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실제에 있어서 700여 정보에 시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초기 3년간에 수목이 필요로 하는 양의 비료를 시비하였고 그후에는 비료를 추가로 주기는 어렵지 마는 벌령기 5년전에 다량의 시비를 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량수종을 남기는 문제는 현장에서 도면을 작성하여서 시행하여야 하지만 이의 실제적인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험이 많은 담당자가 임목마다 표기를 하여 현장에서 기계톱으로 절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수간의 간격과 임목의 성장속도 및 형질의 양호에 따라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무절목재 생산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가지치기와 수고생장을 촉진시켜야 하는데 나무의 성장속도에 따른 적시성 있는 가지치기를 하여야 하므로 빠른 속도로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기구들을 사용하여 보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임목용 사다리라든지 지타봉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도 하였으며 산지형 간벌재 반출차량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적시의 지타는 우량목재를 생산함에 있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첫째의 조건이 되는 것인 바 10년생부터 수고의 1/2 ~ 1/3 정도 높이로 하여 3년 간격으로 주간부위에서 최대한 가깝게 지타를 하여야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다소 시행이 부분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목재수입량은 상당량에 달하지만 앞으로 산림부국이 되어야 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저의 경험으로는 많은 양의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질이 좋은 양질의 목재를 생산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절재의 경우와 옹이가 많은 나무와의 시장경제성을 비교하면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삼나무의 경우에는 최대 8 배까지, 편백나무의 경우에는 약 10 배까지 그 상품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면 그 부가가치성으로 보아 경제성의 제고를 위한 적시에 지타의 중요성은 산림경영에 있어서 대단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 표1 참조 )

네째로 합리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서는 임업이 짧게는 40년, 길게는 80년 이상 걸리는 자본의 회임기간이 매우 긴 상품이므로 단기적인 육성자금 조달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학계 그리고 우리 임업인들은 많은 연구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임업경영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합리적인 자금조달이야말로 지속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하느냐, 하지 못하게 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인자로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타당성 검토가 현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미국 북부지방의 100년 이상된 원시림의 경우에 평균수고 48m로 정보당 1980 입방제곱미터의 수림대도 있고 이웃 일본의 삼나무단지에는 정보당 1,000 입방의 임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례들을 거울삼아 100년만 지난다면 정보당 1,000 입방정도에 수림대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과 울창한 수림을 우리 후손에게 넘겨 줄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저 또한 미력하나마 노력할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왜 나무를 심었느냐고 질문을 한다면 한번 심어보면 알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많은 고통이 따르지만 항상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은 것에 대하여 긍지를 갖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임지에 있어서 현재까지의 투자에 총액은 약 20 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10년만 더 육림에 역점을 두어 우량목재를 생산해 낸다면 40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약 200 억원이라는 금액이 숫자상으로는 산출됩니다.

현시점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우량재의 생산에 모든 기술의 지원강화가 절실한 시점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벌재의 이용도가 현재로는 거의 없으므로 이에 이용방법에 대한 관계연구기관에서의 기술적인 검토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임지의 임도밀도도 한층 더 높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독립가들은 현실적인 문제의 극복에 상당히 지쳐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러하겠습니까마는, 육림은 국가에서 하여야 할 일을 대신한다는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지원책으로 고생하여 심어놓은 나무들을 계속 관리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육림의 성격상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원을 대폭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며 현행 금리 5.5% 이자율보다는 대폭 인하하거나 무이자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더 살기좋은 환경을 남겨줄 수 있는 것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울창한 숲과 맑



은 물이 아니겠는가 하고 평소에 깊게 생각을 하며 이러한 일들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니기 때문에 국가적인 배려가 더욱 커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육림에 대한 저의 경험을 정리하여 본다면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 중에

첫째로는 조림 및 육림에 대하여 이론과 실제에 기초를 둔 기술적인 문제가 확보되어야 하며,  
둘째로는 장기성 자금이 계속 조달되어야 하고,

셋째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로 하는데

세가지 요건중에서도 꾸준한 노력이야말로 절대적인 요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경험을 경청하여 주신 산림관계관 및 학계 그리고 임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  
리며 테에다소나무를 주수종으로 하는 저희의 단지가 하나의 시범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경험담을 마칠까 합니다.

표 1.

가. 품등별 평균가격

( 환화로 환산했을 때, 환율 5 배 )

	특일 등	소 절	상 소 절	1 면무절	2 면무절	3 면무절	4 면무절
삼 나 무	290,000	381,500	481,500	719,500	1,020,500	1,644,000	2,514,000
편 백	566,500	768,000	1,010,500	1,557,500	2,924,500	4,909,000	5,682,000

나. 일반재와 양질재의 제제품별로 본 수입비교

	원 목	2 번 옥	3 번 옥	4 번 옥	계	ha당수입
일 반 재	22,500	17,000	14,000	4,500	58,000	116,000,000
원옥무절	78,500	17,000	14,000	4,500	114,000	228,000,000
2 옥무절	78,500	60,000	14,000	4,500	157,000	314,000,000

다. 지타 경비 시산표

	니지락 ( 泥枝落 )	제 1 회 지타	제 2 회 지타	제 3 회 지타	제 4 회 지타	계
단 가	33,000	33,000	40,000	40,000	40,000	
금 액	552,500	975,000	1,320,000	1,520,000	1,880,000	6,247,500
후 가	1,893,000	2,845,000	3,280,000	3,216,000	3,388,000	14,622,500

## 新品種紹介

### ③ 수원포플러

( *Populus Koreaana* x *P. nigra* Var, *italica* )

수원포플러는 1984년에 개발된 물황철나무 (*P. koreana*)와 양버들나무 (*P. nigra*)의 第1代 교잡종으로 잎은 타원형 혹은 卵形이며 葉底는 圓底이다. 아랫면에 털이 없고 幼葉에서는 약간 흰빛을 띄며 양황철나무와 비슷하다. 육안으로 보아 양황철나무 보다는 잎이 두껍게 보인다.

樹皮는 양황철나무와 비슷하나 다소 회게 보이며 皮目은 세로로 갈라진다.

樹冠은 가지가 四方으로 뻗어 둥근 수관형을 형성하나 수관폭은 이태리 포플러보다 다소 작다.

樹幹은 비교적 통직한 편이나 양황철나무와 현사시 보다는 못하다.

生長은 현사시의 2배이상 材積生長을 期할 수 있으며 適地는 砂質土가 아닌 토심이 깊고 (30cm 이상) 비옥하며 7°이하의 경사로 해발 600m이하의 계곡 주변 하천변 및 산각 (山脚) 지역이 적당하고 耐寒性도 强하다.

材質은 나무빛이 희고 가볍고 연하여 갈라짐과 비틀림이 적어 젓가락등 單板製品에 적합하다.

펄프수율이 높고 표백이 잘 되어 펄프재료로 적당하다.

### ④ 이태리 포플러 1호, 2호

( *P. euramericana* "ECO28", *P. deltoides* "Lux" )

1976년에 이태리 및 미국으로부터 내한성이 강한 품종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에 적응성 검정을 행한 후 이중 내병성이 강한 품종을 선발, 이것을 1984년에 개발한 내병성 포플러이다.

잎은 삼각형에 가까우며 葉底는 平底이다.

아랫면에 털이 없고 樹皮는 暗灰色이며 세로로 갈라진다.

樹冠은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원형 혹은 타원형의 큰 수관을 형성한다.

재래 이태리 포플러에 비하여 낙엽병 및 잎녹병에 강하고 성장도 1.2배 이상의 재적생장을 기할 수 있다.

적지는 배수가 양호한 비옥한 사질양토, 하천부지 冲積土가 좋으나 재래 이태리 포플러 (I-476, I-214)와 같이 추위에 비교적 약한것이 흠이므로 중부 이남지역에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用途로서는 林質이 良好하여 포플러材의 代表格이라 할 수 있으며 젓가락, 성냥, 얼음과자꼬지 상자, 합판 펄프재 등으로 이용한다. (자료: 임목육종연구소 노의래 박사제공)

### ⑤ 街路樹用 현사시

( *P. alba* x *P. glandulus* Fl )

슴털 (꽃가루) 이 발생하지 않은 수나무 (雄樹) 현사시로서 樹幹이 통직하고 수형이 아름다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여 1987년에 개발한 것이며 4 품종 (P9, 11, 12, 15)으로 구성되어 있다.

잎의 특성은 幼葉의 경우 卵形, 成熟葉의 경우 卵形, 혹은 능형이며 葉底는 平底 혹은 圓底이고 腺點이 있으며 뒷면에 白色털이 밀생한다.

<3 페이지에 계속>

## 11月中 林產物(木材·合板)價格 動向

木材 : 11. 1. 現在  
 合板 : 11. 1.

單位 { 木材 : 원 / m<sup>3</sup> (附加稅包含)  
 合板 : 원 / 枚 ( " )

區 分	價 格	價 格			對 比 (%)		備 考
		前年同期	前月 (10)	前月 (11)	前年同期	前 月	
○國內原木							
陸 松	中徑木(中品)	74,000	74,000	74,000	0	0	서울都賣價
참나무類	"	66,000	66,000	66,000	0	0	"
○導入原木							
羅 王	馬來產 SQ	131,330	163,000	163,000	24	0	仁川, 釜山, 群山
美 松	험 록 J	79,000	79,000	79,000	0	0	都賣 平均價
○製材木							
羅 王	4.5cm × 9.0cm × 2.7cm	248,000	248,000	248,000	0	0	서울, 부산, 仁川
美 松	8.5cm × 8.5cm × 2.7cm	133,000	133,000	133,000	0	0	工場渡 平均價
陸 松	3.9cm × 5.1cm × 2.7cm	114,000	114,000	114,000	0	0	서울 工場渡價
○合 板							
工場渡	3.6-4mm × 1,200 × 2,400	3,021	3,172	3,450	14.2	8.8	釜山, 仁川, 群山 地域 平均價
都 賣	"	3,138	3,288	3,588	14.3	9.1	서울, 釜山, 仁川 群山地域
小 賣	"	3,213	3,388	3,688	14.8	8.8	平均價

※ 合板價格은 鮮昌 및 大成木材廠에서 87.10. 1 字로 8.45 ~ 8.57 % 價格 引上함에 따라 地域別 工場渡 都·小賣價格 引上.

※ 資料 : 山林廳 利用課

## 〈 林業人 山林資源化 促進大會 〉

林業人山林資源化 촉진대회(가칭)가 오는 11월 30일 11:00에 서울 洪陵에 있는 세종대왕기념관에서 임업인 대표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大會長 金榮俊씨 주재로 개최될 예정이다. 많은 임업인의 참석을 바라고 있음.

## 〈 會 員 公 知 事 項 〉

위의 林業人山地資源化 촉진대회는 本會를 비롯한 산림청산하 전단체장이 발기인으로 되어 있으며 '88부터 시작되는 第3次 山地資源化 10箇年計劃事業 수립에 즈음하여 이의 성공적인 완수를 기하기 위한 촉진대회로 그 의의가 큰바입니다.

본 대회가 끝나면 本會 會員만의 별도 간담회를 갖고 山林經營에 관한 關心 案件을 모아 施策 반영에 노력토록 할 예정이오니 본회 회원은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 業 界 消 息

○ 山林副産物業界 懇談會 : 山林廳은 지난 10.29 山林廳 會議室에서 木 生産者, 표고생산자등 업계대표 50여명을 초치, 懇談會를 개최하고 光陵 樹木園 및 山林博物館을 視察 案内.

### 會 員 動 靜

○ 本會 慶南支部 住所 變更 : 本會 慶南支部 (支部長 朴照永)는 지난 10月 26日 거창군 거창읍 상동 40-3으로 이사하였음.

○ 本會 北美州 林業視察團 一行 11名은 崔廷雨 團長 引率下에 10.20 ~ 11.6까지 美國, 캐나다 등지의 林業視察를 마치고 지난 11.6 歸國.

○ 本會 理事 金基運 模範篤林家 (百濟藥品 會長)는 지난 11.1 光陵 山林博物館에서 개최된 育林심포지움에서 育林事例 發表.

## 〈 協 會 費 納 入 案 內 〉

計座番號 ○ 서울 신 탁 은 행 : 19501-84009872  
○ 농 협 중 앙 회 : 001-01-025926  
○ 국 민 은 행 : 093-24-0025-624  
○ 우 체 국 : 011809-001478012